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탄자니아

United Republic of Tanzania

2021년 9월 2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  |  |  |   |
|--|--|--|---|
| <b>면적</b><br>945천 km <sup>2</sup><br>(한반도의 약 4배) | <b>인구</b><br>58백만 명<br>(2020 <sup>e</sup> )        | <b>정치체제</b><br>대통령중심제                      | <b>대외정책</b><br>친서방 실리외교                             |
| <b>GDP</b><br>632.4억 달러<br>(2020 <sup>e</sup> )  | <b>1인당GDP</b><br>1,090.4달러<br>(2020 <sup>e</sup> ) | <b>통화단위</b><br>Tanzanian<br>Shilling (Tsh) | <b>환율(U\$기준)</b><br>2,294.2<br>(2020 <sup>e</sup> ) |

- 아프리카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한 탄자니아는 한반도의 4배에 달하는 면적의 국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모잠비크 등과 접경하고 있음.
- 대륙 본토인 탕가니카와 과거 오만의 지배로 이슬람 성격이 강한 잔지바르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잔지바르는 별도의 자치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음.
- 130여 개의 다양한 종족과 기독교, 이슬람교, 토착종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종족 간 또는 종교 간 마찰이 적어 내란과 테러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금, 다이아몬드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킬리만자로 산,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일원으로 관세 동맹, 공동시장 설립 등을 통해 역내 평화 유지 및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나, 역내 라이벌인 케냐와의 이해관계 대립에 따른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4. 30 수교 (북한과는 1965. 1. 4)

**주요협정**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0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5), 문화협정('06), 무상원조기본협정('14), 외교관·관용·공무사증면제협정('18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 구분 | 2018    | 2019    | 2020    | 주요품목              |
|----|---------|---------|---------|-------------------|
| 수출 | 193,690 | 138,020 | 151,237 | 의약품, 합성수지, 섬유제품   |
| 수입 | 33,160  | 36,708  | 47,170  | 동괴 및 스크랩, 연초류, 커피 |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3월 말 누계)** 33건, 8,689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경제성장률    | 6.8  | 7.0  | 7.0  | 1.0  | 2.7  |
| 소비자물가상승률 | 5.3  | 3.5  | 3.4  | 3.0  | 3.3  |
| 재정수지/GDP | -1.2 | -1.9 | -1.7 | -1.0 | -1.3 |

자료: IMF, EIU

### 코로나19로 2020년 큰 폭의 경제성장률 둔화 후 2021년 소폭 회복 전망

- 탄자니아 경제는 2011~19년 중 건설업, 농업, 광업, 수송 및 창고업 부문이 성장을 주도하여 연평균 6.7% 수준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였음. 산업구조는 서비스업(36.8%), 제조업 및 건설업(28.6%), 농업 및 임업(26.5%) 등으로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음.(2019/20회계연도 기준)
-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동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여행 수요가 격감하여 관광업, 숙박업 등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아 전년 대비 크게 둔화된 1.0%의 경제성장률에 그쳤음.
- 다만, EIU는 탄자니아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적극적인 이동제한 조치(lockdown)를 실시하지 않아 역성장을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함.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경제성장률 회복이 전망되나, 산업별 회복 속도는 상이할 것으로 보임.

※ 주요 기관의 2021년 탄자니아 경제성장률 전망: IMF 2.7%, EIU 4.6%, IHS Markit 4.8%, Fitch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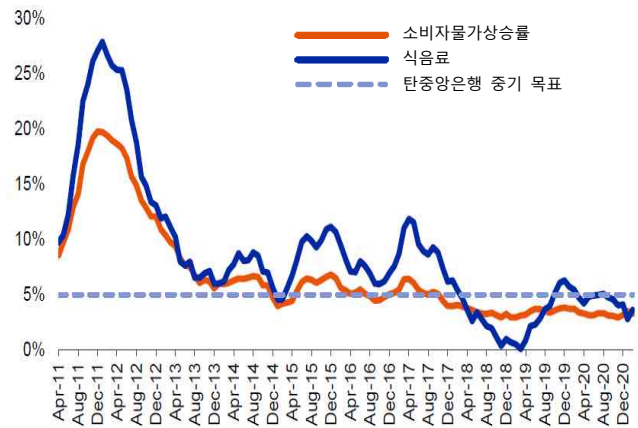
- **(서비스업)**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물류 및 유통업 부문의 개선이 예상되나, 주요 산업인 관광업 부문은 탄자니아 내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의 늦은 도입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제조업)** 하산 대통령은 마구폴리 前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표준궤 철도, 수력발전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부문의 회복이 전망됨.
- **(광업)**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로 금광을 중심으로 한 광업 부문의 성장이 전망됨.
- 다만, 정부의 다소 늦은 백신 프로그램 도입 계획 수립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 속도가 제한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지속된 코로나19 변이의 출현과 확산은 글로벌 경기 회복의 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탄자니아의 주요 산업인 관광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음. 특히,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은 체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부재한 탄자니아에 치명적일 수 있음.
- WHO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진 건수는 8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13일자 기준 총 600만 건을 넘었다고 밝힘. 특히, 지난 6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100만 건이라고 보고하며, 과거 100만 건이 증가하는데 3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해 전파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우려함.

##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세 지속 전망

- 2012년 식료품 가격과 국제유가의 동반 상승으로 16.0%에 달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후 국제유가 하락, 식료품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하향 안정되어 2020년에는 3.0%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에도 국내 식료품 공급 상황 및 환율이 안정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업의 부진 및 해외직접투자 유입 감소,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 등으로 인한 환율 상승 압력은 물가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탄자니아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Bank of Tanzania, Moody's

###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감소 후 2021년 확대 전망

- 2020년 탄자니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대선 관련 비용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의 와중에도 적극적인 과세 정책 등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전년 대비 축소된 -1.0%를 기록하였음.
- 2021년에는 경기 회복으로 재정수입 증가가 전망되나, 동시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 지출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 지속 등으로 재정지출 증가 역시 예상되어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된 -1%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탄자니아 재정수지 추이

(단위: 십억 탄자니아 실링)

| 구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재정수입 | 18,304 | 18,932 | 20,520 | 21,850 | 22,528 |
| 재정지출 | 19,679 | 21,424 | 22,921 | 23,301 | 24,531 |
| 재정수지 | -1,375 | -2,492 | -2,401 | -1,451 | -2,003 |

자료: IMF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경 상 수 지   | -2,128 | -1,898 | -1,301 | -1,214 | -2,085 |
| 경상수지/GDP  | -4.0   | -3.4   | -2.2   | -1.9   | -3.2   |
| 상 품 수 지   | -3,355 | -3,854 | -3,222 | -1,517 | -2,257 |
| 상 품 수 출   | 4,096  | 4,445  | 5,378  | 6,372  | 6,527  |
| 상 품 수 입   | 7,451  | 8,299  | 8,600  | 7,889  | 8,784  |
| 외 환 보 유 액 | 5,801  | 4,940  | 5,476  | 4,673  | 4,821  |
| 총 외 채     | 18,991 | 21,210 | 22,220 | 22,834 | 23,465 |
| 총외채잔액/GDP | 35.7   | 37.4   | 36.5   | 36.1   | 35.6   |
| D.S.R.    | 12.6   | 13.9   | 14.6   | 20.1   | 21.6   |

자료: IMF, EIU

### 2020년 국제 금 가격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축소

- 탄자니아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이동제한 조치로 해외 관광객 유입이 크게 감소하며 관광업이 크게 위축되어 서비스수출이 감소하였으나, 국제 금 가격 상승에 기인한 상품수출 증가 및 경기 둔화에 따른 상품수입 감소로 상품수지가 개선되어 2020년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되었음.
- 2020년 탄자니아 총수출의 26.1%를 차지하는 서비스수출은 관광업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46.5% 감소한 22.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한편, 2017년 광물법 개정의 영향으로 2020년 주력 수출품인 금(상품수출의 41%를 차지)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국제 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품수출 규모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한 63.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최근 5년 간 국제 금 선물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 대외거래

### 2021년에는 관광업 부진 지속과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며 금, 농산물, 공산품 수출이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동시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서비스수지 개선 지연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마구폴리 前대통령 하에서 이뤄진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관광업 부진의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서비스수지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능력

### 만성적인 경상·재정수지 적자로 외채규모가 증가하여 외채상환 부담 증가

- 탄자니아는 파리클럽,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주도의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외채 탕감을 받은 바 있으나,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분을 해외차입으로 보전함에 따라 외채잔액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1년 고채무저소득국 이니셔티브(HIPC Initiative)<sup>1)</sup>에 따라 30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은 데 이어 2006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DRI Initiative)<sup>2)</sup>에 따라 37억 달러의 외채를 탕감받음.
- 2020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228억 달러(GDP의 36.1%)이며, 2021년 말에는 전년 대비 2.8% 증가한 235억 달러(GDP의 3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채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여 D.S.R.은 2017년 12.6%에서 2020년 20.1%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에도 계속 상승하여 2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2020년 말 기준 단기외채잔액은 전년 대비 감소(18.2억 달러 → 17.5억 달러)하였으나, 외환보유액 감소(54.8억 달러 → 46.7억 달러)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2019년 33.2%에서 2020년 37.4%로 상승하며 단기외채 상환부담도 증가하였음.

1) HIPC Initiative: 고채무저소득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39개국)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리스케줄링과 탕감을 실시하는 채무구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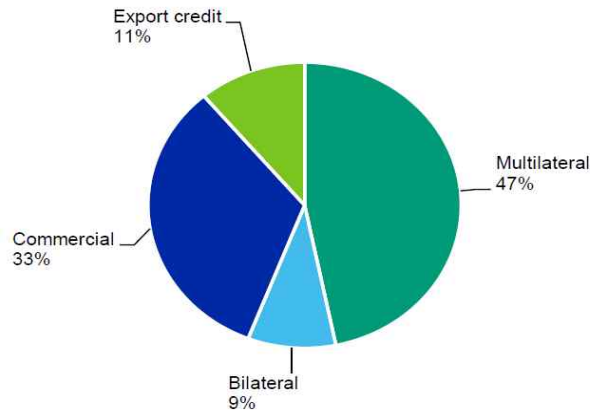
2) MDRI(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HIPC Initiative를 성공적으로 졸업(Exit)한 국가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미주개발은행(IDB) 4곳이 채무 전체를 탕감하는 프로그램

## 외채상환능력

### 외채상환능력 저하에도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단기외채 상환불능위험은 높지 않을 전망

- 탄자니아의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은 2019년 5.7개월분에서 2020년 5.5개월분으로 감소하였으며, 2021년에는 5.0개월분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한편, Moody's는 탄자니아의 정책에 관한 예측불가능성이 해외자본 유입을 감소시켜 외채상환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 다만, 외채 중 다자기구(Multilateral institutions)로부터의 장기 저리의 양허성 차관 비중이 높고, 탄자니아가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어 단기외채 상환불능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탄자니아는 2020년부터 채무상환유예 이니셔티브(DSSI)<sup>3)</sup>의 수혜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재해 억제 및 부채경감기금(CCRT)<sup>4)</sup>을 지원받았음. 2021년에는 중국과 172억원 규모의 무상원조 지원협정(2021년 5월)을 체결하였고, 세계은행(WB)도 탄자니아 앞 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차관 계획을 발표(2021년 5월)하는 등 탄자니아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음.

탄자니아 외채의 채권자별 비중(2020년 말 기준)



자료: Moody's

3)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G20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저소득국의 채무 상황을 유예해주는 프로그램(2020년 5월 시행)으로, 당초 기한은 2020년 말까지였으나 현재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됨.

4) Catastrophe Containment and Relief Trust: IMF는 탄자니아 앞 2020.6.10.~10.13. 기일도래 외채상환원리금인 14.3백만 달러를 탕감하였으며, 재원 마련 시 2020.10.14.~2022.4.13. 기일도래 외채상환원리금 중 25.7백만 달러를 추가 탕감할 수 있다고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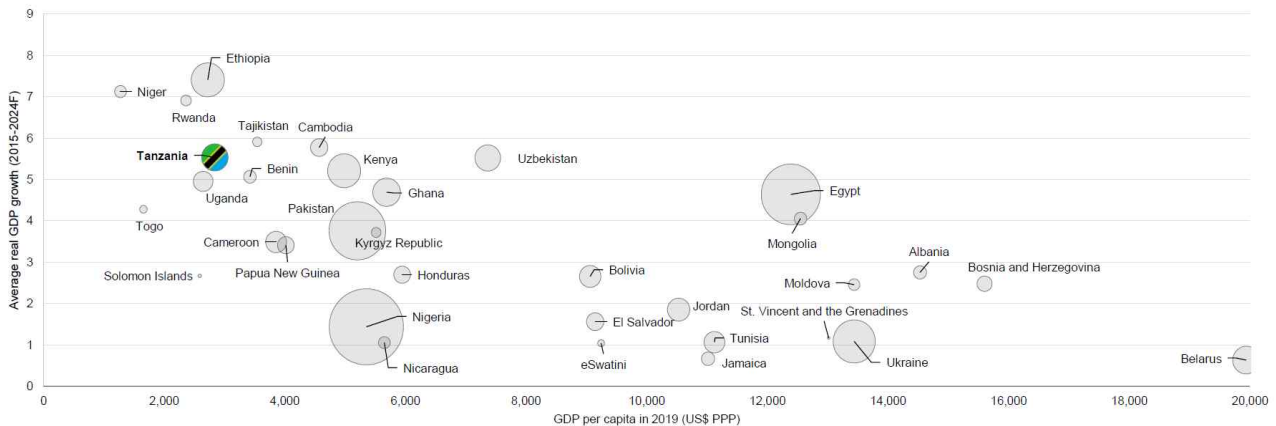
## 구조적취약성

###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소득수준

- 탄자니아는 2011~19년 중 평균 6.7%의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2019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GDP가 2,841달러에 불과함. Moody's는 탄자니아의 낮은 소득수준은 탄자니아가 외부로부터의 경제충격에 대응할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우려함.

※ PPP 기준 1인당 GDP는 나라마다 다른 물가나 환율 수준을 반영해 실제 국민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세계 1위는 룩셈부르크(118,002달러), 2위는 싱가포르(97,057달러)이며 한국은 27위(44,621달러)임

### 국가별 경제성장률과 개인의 실질 구매력 수준



※ 원의 크기: 2019년 명목 GDP 규모(단위: 십억 달러) / 자료: Moody's

### 단일 상품에 대한 높은 수출의존도 및 기후조건 변동에 취약한 산업구조

- 탄자니아의 상품수출은 크게 커피, 캐슈넛, 담배 등으로 구성된 전통적 수출 부문(16%)과 광물 및 공산품(manufactured goods)으로 구성된 비전통적 수출 부문(78%)으로 구분됨(Bank of Tanzania Annual Report 2019/20).
- 광물은 비전통적 수출 부문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금은 광물 수출의 95%, 상품수출 총액의 41%를 점유하여 국제 금 가격 변동이 상품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큼.
- 한편, 기후조건 변동에 취약한 농업 및 임업 부문은 탄자니아 GDP의 27%를 점유하며, 노동인구의 66%가 동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최근의 기후 변화 및 증가하는 수자원 수요 등으로 주요 강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동 부문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탄자니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기술인력 육성을 통한 산업 고도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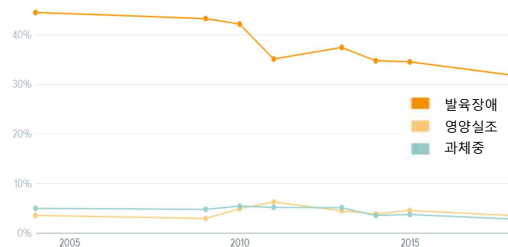
-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농산물 가공, 가죽, 섬유, 목재 등 노동집약적인 단순 제조업 분야가 탄자니아의 경제성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탄자니아 인력 중 높은 숙련도를 가진 기술인력 비중은 3%(중소득 국가 평균 10%)에 불과하고, 낮은 숙련도를 가진 인력 비중이 80% 이상(중소득 국가 평균 50%대)으로 산업 고도화를 위한 기술인력 육성이 시급함.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은 2019년 탄자니아의 기술인력 숙련도가 141개국 중 126위라고 발표함.

###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높은 사회적 위험

- Moody's는 보건·의료, 교육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주거 부족 등으로 탄자니아의 사회적 위험이 높다고 분석함.
- 특히, 높은 기아 비중과 낮은 교육수준\*은 인적 자원 개발을 저해함으로써 탄자니아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한다고 지적함.

\* 세계은행(WB) 기준 탄자니아의 중등교육 입학자 비중 (2018년): 26.5%

탄자니아 영유아 영양문제



※ 5세 미만 영유아 중 해당 항목의 비중

자료: Global Nutrition Report 2020

## 성장잠재력

### 금, 다이아몬드 등 다양하고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

- 탄자니아는 금, 다이아몬드, 우라늄, 석탄, 니켈 등 경제적 가치가 큰 다양한 광물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음.
-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인 금의 확인매장량은 4,500만 온스로, 탄자니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가나, 말리에 이어 아프리카에서 4번째로 많은 금을 생산(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기준)하고 있으며, 광물 탐사가 이루어진 곳이 국토 면적의 20%에 불과하여 향후 추가 발굴 가능성이 큰 편임.
- 2019/20회계연도 기준 총 상품수출액에서 광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3.3%이며, 광물 수출 중 금이 95%를 점유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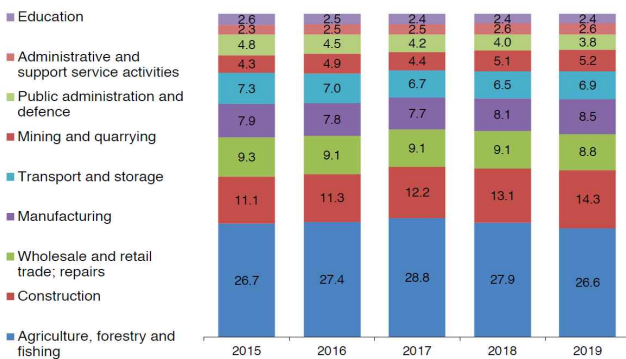
## 성장잠재력

###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다년간의 고성장에 힘입어 하위 중소득국 진입

- 탄자니아는 2019/20회계연도 기준 산업구조가 서비스업(36.8%), 제조업 및 건설업(28.6%), 농업 및 임업(26.5%) 등으로 비교적 다변화되어 있고, 수출 품목도 동아프리카 국가들 중 4번째로 다양함.
- 2011~19년 중 건설업, 농업, 광업, 수송 및 창고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기반으로 평균 6.7%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아울러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세계은행 기준 2020년 7월 1일자로 저소득국에서 하위 중소득국으로 진입\*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목표를 5년 앞당긴 성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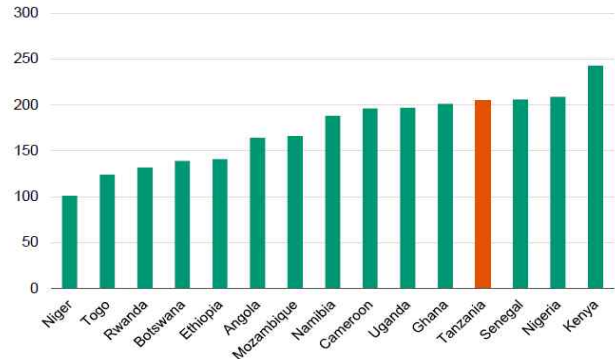
\* 2019년 기준 1인당 GNI 1,080달러 기록

세부 산업 부문별 GDP 기여 비중(%)



자료: Bank of Tanzania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수출품목 수



자료: UNCTAD, Moody's

### 인도양에 인접하여 동아프리카 및 아프리카 내륙국의 무역 허브로의 부상 가능성

- 탄자니아에는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내 2번째 규모의 항만이자 인도양에 인접한 다레살람 항이 있으며, 아프리카 중부의 물류거점이 되고자 다레살람 항, 바가모요 항, 탕가 항을 확장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임.

\* East African Community: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6개국으로 구성

- 아울러 총 연장 2,500km의 표준궤 철도 (SGR; Standard Gauge Railway) 건설을 진행 중으로, 건설 완료시 르완다,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 등 인접국으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 탄자니아의 기존 철도 노선 및 건설 중인 SGR 노선



\* 파란 점선 구간은 국내(현재 진행 중, 진행 예정) SGR 노선, 붉은 실선 구간은 탄자니아와 인접국들을 잇는 SGR 노선

자료: KOTRA, Tanzania Invest

## 정책성과

### 하산 대통령은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 인프라 구축은 현재 탄자니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하산 대통령은 마구폴리 前대통령이 추진했던 인프라 개발 중심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신도시, 에너지, 교통,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5년 간 인프라 개발 사업에 약 160억 달러를 투입하였음.
- 주요 프로젝트로는 표준궤 철도(SGR) 건설, 줄리어스 니에레레 수력발전소 건설, 우간다-탄자니아를 연결하는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 수도 도도마의 Msalato 국제공항 건설 등이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음.

### 정부 정책 추진의 비일관성 등 비우호적 사업환경 개선 노력

- 탄자니아 정부의 보호주의 정책, 경제정책 입안 및 추진 과정에서의 일관성 부족은 민간자본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됨.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비교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20에서 탄자니아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141위로 하위권을 기록함.
- 탄자니아의 법률·인권센터(LHRC)<sup>5)</sup>는 탄자니아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였고, EIU는 예고 없이 단행되는 세율 인상, 자의적으로 시행되는 규제 변동,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의 투명성 부족 등이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 부문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다고 분석함.
- Moody's는 현재 지연되고 있는 탄자니아의 LNG 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하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탄자니아의 높은 투자매력도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기조 및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탄자니아가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함.
  - \* 동 프로젝트는 300억 달러 규모로 당초 2022년부터 사업이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탄자니아 정부가 계약 조건에 대한 재검토를 이유로 외국 투자자와의 협상을 중단한 바 있음.
- 하산 대통령은 마구폴리 前대통령과는 달리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인사로의 내각 교체, 강압적인 세금 징수 관행 개선, 관료주의적 행정 관행 철폐, 현지인 채용의무 완화 등 국내외적으로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 마구폴리 前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외국계기업에 대한 세금 증액, 외국인 고용 기준 강화, 수입 제품의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해 GDP 대비 FDI 순유입률이 2015년 3.2%에서 2019년 1.6%로 감소하였음.

### 천혜의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통한 관광 부문의 성장 도모

- 탄자니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립공원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을 포함하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7곳\*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 킬리만자로 산, 세렝게티, 응고롱고로, 셀루스 동물보호구역, 잔지바르 석조도시, 콘도아 암석화 유적, 킬와 키시와니 및 송고 음나라 유적

5) Legal and Human Rights Centre: 탄자니아 국민의 법적 권리 및 인권 증진을 위해 1995년 설립된 탄자니아의 비영리단체

## 정책성과

- 탄자니아는 신관광개발정책(New Tourism Development)을 통해 관광지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며, 2017년부터 6년간 세계은행으로부터 1.5억 달러를 지원받는 REGROW(Resilient Natural Resource Management for Tourism and Growth)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동 프로젝트는 루아하, 미쿠미, 우드중와 국립공원 도로 인프라 구축, 공항 및 항공편 신설 등을 포함하며, 인근 거주자들이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함께 추구하고 있음.
- 탄자니아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로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90만 명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의 외국인 관광객 수입은 24억 달러를 기록하여 2014년 15억 달러 대비 60% 증가하였음.
-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8 Tanzania에 따르면 탄자니아에 2017년 100만 여개의 관광 관련 일자리가 창출(총 고용인구의 8.2%)되었으며, 2028년에는 190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 탄자니아의 관광업 고용 인구(좌) 및 외국인 관광객 수(우)



자료: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2018 Tanzania, KOTRA

### 광물법 개정으로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 중이나 산업적 기반의 결여로 역효과 초래

- 탄자니아 의회는 2017년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격한 관리·규제 및 이를 통한 국가경제 이익 강화를 목적으로 광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 주요 내용은 광물수익에 대한 탄자니아 정부의 무상이익공유율(free-carried interest rate)<sup>6)</sup>을 최소 16%로 정하고, 광업 부문 관련 중재는 탄자니아 법원이 담당하며, 광업 부문 거래에 탄자니아 국내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비가공 광물의 수출을 억제하고 가공 산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등임.
- 그러나 탄자니아의 광물 정련·제련업 발전 수준이 매우 저조하여, 비가공 광물의 수출 억제는 오히려 금을 비롯한 주요 광물의 수출 감소라는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6) 특정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원 탐사 또는 생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 중 그 국가의 정부에 별도의 수수료 등이 없이 할당되는 이익의 비율

## 정책성과

###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부패인식지수 순위 개선

- 2015년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마구폴리 前대통령은 취임 후 관료주의 타파, 고질적인 부정부패 척결 등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하였음.
- 주요 관련 조치는 공무원 해외출장시 대통령실 승인 취득 의무화, 장부상에만 존재하며 급여를 착복하는 유령 공무원의 정리, 부패와 연루된 고위 공무원의 해임, 학력 위조 공무원의 퇴출 등임. 아울러 불필요한 지출 선별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등으로 2016년 GDP의 13.1% 수준이었던 경상지출 규모를 2020년 GDP의 9.7% 수준으로 축소함.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집계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국가별 순위에서 탄자니아는 마구폴리 前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 2016년 116위에서 2020년 94위로 상승함.

\* 부패인식지수 추이: '16년 116위 → '17년 103위 → '18년 99위 → '19년 96위 → '20년 9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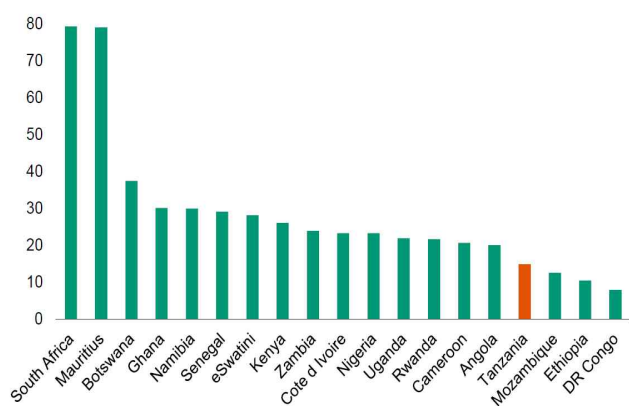
###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최하위권이나,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 기대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탄자니아의 2019년 글로벌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117위로 하위권에 위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인프라(121위), 정보통신기술 도입 수준(133위), 숙련도(126위), 혁신역량(123위) 분야가 특히 열위함.

※ 주변국 글로벌 경쟁력 순위: 케냐 95위, 우간다 115위, 에티오피아 126위

- 탄자니아는 인프라 개발 사업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019/20년도 예산의 37%를 인프라 개발에 책정하는 등 적극적인 인프라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줄리에스 니예레레 수력 발전소, 우간다-탄자니아를 잇는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내륙 횡단철도인 표준궤 철도 등이 있음.
- 동 프로젝트를 포함한 지속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로 인한 무역 증진 효과도 기대됨.

아프리카 인프라 개발 지표(2020)



\* 점수가 낮을수록 낮은 개발 수준을 의미  
자료: African Development Bank, Moody's

## 정치안정

### 하산 대통령 행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전망

- 2020년 10월 재선에 성공한 존 마구폴리 대통령이 2021년 3월 오랜 지병으로 서거함에 따라 사미아 솔루후 하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탄자니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음. 현재 집권 여당(CCM: Chama Cha Mapinduzi)이 의석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제1야당과 제2야당도 신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하산 대통령 행정부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CCM이 1961년 독립 이래 집권 여당의 지위를 이어오고 있어 탄자니아 정세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아울러, 하산 대통령은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 매체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는 등 전임자인 마구폴리 前대통령과는 달리 사회·정치적으로 보다 유화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어 야당 포용을 통한 민주주의 활성화가 기대됨.
- 마구폴리 前대통령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억압,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 등의 독재적인 정책으로 주요 야당과 갈등을 빚었음.
- 하산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국정 연설(4.22.)에서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한 야당 지도자들과의 대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전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잔지바르 자치정부 내 여야 간 대립은 일단락되었으나 선거 관련 소요사태 우려

- 탄자니아는 본토(옛 명칭은 탕가니카) 중앙정부와 잔지바르 자치정부가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음.
- 잔지바르 지역은 1995년 이래 5년마다 실시되는 자치정부 대선과 관련된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싸고 소요사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 열린 자치정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정치·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음.
- 현재 제2야당(ACT-Wazalendo)이 잔지바르 자치정부의 범정치권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 구상에 동참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여·야 간 화해의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나, 다음 선거에서도 이러한 소요사태로 인한 사회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 사회안정

### 종족·종교간 큰 갈등 없이 사회안정 유지

- 탄자니아는 다양한 종족\* 및 종교\*\*가 복합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에도 두드러진 종족·종교 간 갈등이 없어 아프리카에서 정치·사회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국가들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

\* 130여 개 이상의 부족으로 구성된 아프리카인 99%, 기타 1%

\*\* 본토: 이슬람교(35%), 토속종교(35%), 기독교(30%) / 잔지바르: 이슬람교(99%)

### 하산 대통령 취임 후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책 실시

- 마구폴리 前대통령은 코로나19의 존재를 부정하며 서방에서 제조된 백신을 탄자니아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약재를 달인 증기를 흡입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탄자니아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직원들을 추방하였음. 아울러, 2020년 5월부터 공식적인 코로나 확진자·사망자 집계를 중단하였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신의 은총으로 코로나를 퇴치했다”며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함.
- 하산 대통령은 前대통령과 대조적으로 모든 공식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며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 구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IMF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차관(RCF; Rapid Credit Facility)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책을 실시하고 있음.
- IMF는 긴급차관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탄자니아의 경제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음을 증명하고 특히 탄자니아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힘.
- 한편 탄자니아 보건부는 탄자니아 내 3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의 방지를 위해 국민들이 ①손 세정 등 방역조치 실시, ②군중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 ③불필요한 모임 자제, ④코로나19 의심 증상 발현시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2021년 6월 28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공개하기 시작함.

\* 1차 대유행은 2020년 4~5월, 2차 대유행은 2021년 1~2월로 추정(주탄자니아 대사관)

###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은 편이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가능성 존재

- 탄자니아는 전통적으로 동아프리카 역내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종종 지역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지정학적 리스크는 낮은 편이나, 인접한 모잠비크에 존재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협 가능성이 있음.
- 모잠비크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2017년 천연가스가 풍부한 모잠비크 북부에서 공격을 시작, IS에 충성을 맹세한 바 있으며 한때 모잠비크의 주요 항구 도시를 점령하는 등 과감한 습격을 감행함. 이들은 2020년 10월 14일 탄자니아의 경찰서를 공격하고 주민들을 살해하는 등 탄자니아에도 위협이 되고 있어, 만약 이들이 탄자니아에 유입될 경우 테러 위협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탄자니아는 소말리아에 기반을 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알샤바브\*와 교전 중인 아프리카 연합군에 병력을 지원하지 않아 동 테러 단체로부터의 테러 위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사회안정

### Moody's는 탄자니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

- 2021년 4월 Moody's\*는 환경, 사회위험, 지배구조 위험 등 모든 요인이 탄자니아 경제의 회복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탄자니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8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5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20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2개국이 2·3등급, 65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기후조건에 취약한 농업 및 수력 발전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탄자니아는 증가하고 있는 물 수요와 반복되는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위험에 부정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아울러, 최근의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한 기후 변화는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탄자니아의 수자원 활용도를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함.
- **(사회)** 높은 빈곤 수준과 소득 불균형, 의료·복지 및 교육을 포함한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등으로 탄자니아의 사회위험은 높은 수준임. 또한, 높은 수준의 영양실조 및 미취학 인구 규모는 인적 자본의 질적 개선을 저해하여 탄자니아의 성장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사회(Social) 영향을 매우 부정적(5등급)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탄자니아의 정책에 관한 예측 불가능성은 재정정책의 효과성과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한다고 분석하며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함.



## 국제관계

### 하산 대통령 하에서 외교관계 개선 전망

- 하산 대통령은 마구폴리 前대통령을 대신하여 부통령 재임 시절 유엔,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등이 개최한 국제회의에 다수 참석하였으며, 여러 외교행사를 주관한 점 등에 비추어 노련한 외교수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하산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제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및 해결책을 제언할 수 있는 전문 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CFTA)<sup>7)</sup> 참여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국제적 위신의 회복 및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음.
- 탄자니아는 역내 주요 경쟁국인 케냐와 종종 무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양국은 2020년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 절차 문제로 마찰을 빚음. 하산 대통령은 2021년 5월 케냐를 방문하여 무역장벽을 허물고 사회 각 부문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역내 통합을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서방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경제협력을 지속하면서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 강화

- 탄자니아는 국가 개발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의 주요 재원을 세계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을 통해 꾸준히 조달하고 있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중요시함. 한편,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 기회법(AGOA)<sup>8)</sup>과 같은 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국, EU 등 전통적 협력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요 교역상대국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sup>9)</sup>을 기반으로 탄자니아와 경제 및 무역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바가모요 항구, 표준궤 철도, 석탄 화력발전소,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 외에 개발원조를 통해 상수도, 공공의료, 교육 부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7)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은 2021년 6월 기준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 55개국 중 54개국(에리트레아 제외)이 서명을 완료한 WTO 출범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까지 38개국이 AU에 비준서를 기탁함. AfCFTA 시행은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통합하는 무역협정 공식 시행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국가마다 인프라 구축 및 정책 입안 속도, 수준 등이 상이하고 인증, 통관 등과 관련한 비관세장벽 해소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실제적인 시행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KOTRA,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 공식 시행으로 기대되는 아프리카 시장 변화')

8) 아프리카성장기회법(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은 아프리카의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미국 시장에서의 무관세 접근을 허용하는 특혜무역조치임(대외경제정책연구원).

9)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rum on China-Africa Cooperation)은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상호 교류를 위해 구성된 다자간 대화기구로,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래 3년마다 열리고 있음(네이버 시사상식사전).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편

- 2021년 3월 말 기준, 탄자니아 앞 OECD 회원국 ECA의 지원잔액은 1,718백만 달러(단기 92백만 달러, 중장기 1,626백만 달러)이며, 이 중 연체 잔액은 3.2%에 해당하는 55.6백만 달러임. 상환대상 원리금 잔액 중 일부를 연체 중이나 그 비중이 크지 않고, 재조정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 중으로 외채 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 평가기관    | 최근 평가 등급     | 종전 평가 등급     |
|---------|--------------|--------------|
| OECD    | 6등급(2021.06) | 6등급(2020.06) |
| Moody's | B2(2020.08)  | B1(2018.03)  |

### Moody's는 2020년 8월 탄자니아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 Moody's는 2020년 8월 열악한 거버넌스로 인한 국가신용위험 증가로 탄자니아의 신용등급을 B1에서 B2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특히, 정부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탄자니아에 대한 외국인투자 매력도와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 부담 및 유동성 위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함.

- 탄자니아는 건설업,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기반으로 2019년까지 수년 간 6~7% 수준의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며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2021년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으로 2%대 후반의 경제성장률 회복이 전망되나, 최근 전 세계적인 델타 변이의 확산이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열악한 세수기반과 지속적인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재정지출 등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국제 금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인프라 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 증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마구폴리 前대통령의 서거로 2021년 3월 취임한 하산 대통령은 여당의 지지 아래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정치적으로 유화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어 야당 포용을 통한 민주주의 활성화가 기대됨. 아울러,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외교관계 개선이 전망됨.
- 지속된 쌍둥이 적자를 해외 차입으로 보전하여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있어 단기 외채상환불능위험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